

Joseph, Evil Events, Providential Purposes
요셉, 사악한 일들, 그리고 섭리적 목적들 (창세기 37:12-36)

Beyond Victim-Mentality: Glimpsing the Hidden Hand of God

When things go wrong in our lives...particularly when great trials threaten to overwhelm us...or someone sins against us...there's a very real sense in our broken world that we become victims. But it's one thing to be a victim & another ... to adopt a victim-mentality

Taking on a victim-mentality happens when we find ourselves growing in self-pity & questioning the Lord's goodness. The doubts can grow that the Lord is good to the point where we speculate that evil events must mean that in some way, God is unfair. What will stop us from that downward spiral? Believing the great truth underlying the passage today...that the hidden Hand of God is in control of even the evil events, that He provides for His children at all times to bring about His great purposes. Trusting that God is sovereign & provides all that is needed to achieve His good end is key not just to avoiding a victim-mentality, but persevering with joy...

We come to the second in the series on Joseph's life...Remember Joseph's father Jacob had shown sinful favouritism to him ...He was the older son of his favourite wife Rachel who had died giving birth to his younger brother, Benjamin...Jacob showed his favouritism by the robe that showed his brothers just how much more he loved Joseph than them. We remember that Joseph's character was wanting in telling on his brothers rather than confronting them in the field.

피해 의식을 넘어 주님의 숨은 손길을 깨닫다.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특별히 큰 시련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던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우리는 이런 일에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악에 피해자가 되는 것과 피해 의식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피해 의식은, 우리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고, 주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가질 때 생기게 됩니다. 주님이 선하심을 의심하며, 하나님은 불평등한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오해하는 일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저변에 깔린 위대한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함을 보게 됩니다...이는 악이 난무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숨어있는 손길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는 것이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목적을 그의 자녀들에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주권을 믿음은 우리가 피해 의식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기쁨 가운데 인내하게 합니다.

오늘은 요셉 이야기 시리즈의 두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전 설교에서 우리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그 죄 가운데 그의 자녀들을 차별 대우했음을 보았습니다...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첫아들이었고, 그녀는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었습니다...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한 옷을 지어 줌으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욱 사랑함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의 성품에 대해 보기를, 요셉은 이런 사랑을 자기 형제들에게 더욱 드러내기 원하는 성품이었음을 보았습니다.

Along with Jacob's favouritism, the particular sin the text highlighted was the brothers' growing hatred of Joseph... Then, to inflame the division even more, God sent two dreams with the common theme that Joseph's brothers would one day be in submission to him as their ruler...

Ominous Location, Providential Person (12-17)

v12, '(Now) his brothers went to pasture their father's flock near Shechem. And Israel said to Joseph, "Are not your brothers pasturing the flock at Shechem? Come, I will send you to them." And he said to him, "Here I am." So he said to him, "Go now, see if it is well with your brothers and with the flock, and bring me word." So he sent him from the Vally of Hebron, and He came to Shechem.'

[MAP]

Shechem was 60 km to the north of their home in Hebron. Shechem was ominous ... in Genesis 34, when Jacob and his family were camped before the city of Shechem on a plot that Jacob had bought from Canaanites known as the sons of Hamor who along with their father, ruled the city...one of Hamor's sons, 'Shechem' forced himself upon Jacob's daughter, Dinah while she was visiting the women of the land. Shechem wanted to marry her, but Dinah's brothers Simeon & Levi took their swords & killed all the men including Hamor & his son, Shechem...

The sons of Jacob plundered the city & captured their wives & children. The mere mention of the name so soon signals a sinister location. That very concern would have been playing on Jacob's mind enough for him to call his favourite son & command him to go & see if they were ok. He seems clueless as to the hateful division his favouritism had aroused from his 10 sons against Joseph.

이런 야곱의 편애함 가운데, 나타나는 또 다른 죄의 모습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 형제들의 질투와 미움이었습니다...그리고 이런 미움을 더욱 증폭시키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특별한 꿈을 보여 주심으로 터지게 됩니다...이 꿈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12~14 절 “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 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 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지도 참고>

세겜은 그들의 집인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세겜은 야곱에게 나쁜 기억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4 장에서 보듯이, 야곱과 그의 가족이 세겜에 이르기 전 한 장소에서 천막을 치고 머물고 있을 때, 하물의 아들이며, 그 지역 추장이었던 세겜이, 그 지역을 방문 중이었던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습니다. 세겜은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하물과 그의 아들인 세겜을 포함한 그 지역의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 도시를 약탈하고, 모든 아내와 아이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야곱은 이런 근심 가운데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을 그곳으로 보내 그 형제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그의 형제들에게 보냈을 때, 그의 10 아들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Though it's met by an unquestioning obedience from Joseph, "Here I am"... Joseph seems unaware of the danger that awaited him. With an ominous location, a clueless father & a naive son...the stage is set...

v15, 'And a man found him wandering in the fields. And the man asked him, "What are you seeking?" "I am seeking my brothers," he said. "Tell me please, where they are pasturing the flock." And the man said, "They have gone away, for I heard them say, 'Let us go to Dothan.'" So Joseph went after his brothers and found them at Dothan.

Though the Lord is not mentioned in this passage, the sign of His presence is in providing this apparently random man who finds Joseph wandering in the fields. He asks the question with a view to helping him. Out of all the Canaanites in the area — the Lord saw fit to arrange for this unnamed man to be the means of Joseph finding his brothers.

If we think about that area ... many of the Canaanites would have been understandably hostile in light of the violence & theft that had happened to some of their countrymen in the recent past at the hands of Joseph's family. Joseph doesn't even seem to be aware of the danger he was in by being in Shechem Engaging in conversation with one of the locals identifying as a brother of the killers.

Yet the Lord provided just the man to guide Joseph to where he needed to be ... a not so random man to what we see was a not so random area... [MAP]

Dothan was a 'fertile plain' that provided an easy pass for travellers who were coming down from the north & across from the east on their way to Egypt. [IMAGE 4]

요셉은 이런 야곱의 말에 순응하지만, 그 또한 자신에게 다가올 위험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안 좋은 기억의 장소...위험에 무지한 아버지, 그리고 순진한 아들...다음 이야기의 무대는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15~17 절 “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비록 이 구절에서 주님이 언급되지 않지만, 방황하는 요셉에게 길을 알려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상황을 주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큰 가나안 지역 가운데에서, 이 이름도 모른 한 남성을 통해 주님께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당시 지역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요셉의 가족의 약탈과 폭력에 피해를 입어, 요셉의 가족에게 큰 적대심을 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눔으로, 자신이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 남자를 통해서, 요셉의 길을 인도하십니다...<지도 참고>

도단은 북쪽으로부터 내려와 동쪽으로부터 가로질러 이집트로 가는 여행객들에게 쉬운 통로를 제공하는 비옥한 평야였습니다.

Evil Actions, Providential Passers-by (18-28)

V18, 'They saw him from afar, and before he came near to them they conspired against him to kill him. They said to one another, "Here comes this dreamer. Come now, let us kill him and throw him into one of the pits. Then we will say that a fierce animal has devoured him, and we will see what will become of his dreams."'

Their hatred & jealousy towards Joseph had been building...4 times in the first 11 verses we're told as much. Now, 60 km from home — the restraint of their father's watch is off to bring their rage to its logical end — a conspiracy to murder him.

In the distinctive coat they see him from a long way. The first thing they say to one another upon recognising him, literally is, 'Behold, this lord dreamer is coming.' That tells us that in their hatred they were conspiring as much against Joseph as against God who had given him his dreams.

That's made all the more certain when they say, 'we'll see what will become of his dreams' after having said that they were going to murder him & cover up the crime. It was ultimately to overturn the God-given prediction that he would ever rule over them...

We're reminded of the Apostle Paul in Acts 26 when he recounted the time when the risen Jesus confronted him in his murderous quest on the road to Damascus & said,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It is hard for you to kick against the goads." Meaning — that Paul was fighting against the Lord like an animal resisting its master's goading stick — he was fighting in vain.

18~20 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피하여 서로 이르되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미움과 질투는 점점 커져 갔습니다...이 첫 11 구절에서, 4 번이나 그들의 적대심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60km 나 떨어져, 아버지 야곱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형제들은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옷으로 인해 그 형제들을 요셉을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고, 이 요셉을 보자마자 그들이 한 첫 말은,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함은,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또한 그들이 증오함을 나타냅니다.

이런 사실은 그들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라고 말함으로 더욱 확실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말을 한 뒤, 요셉을 죽이고, 그들의 범죄를 감추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요셉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뒤집어엎으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6 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서 돌친 채찍을 받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새번역>” 이 말씀의 의미는, 사울이 주님의 뜻을 대적하며 싸우고 있음은, 동물이 동물주인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싸움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The Lord's purposes in providence can't be thwarted.....though we're often tempted to think that evil is winning....Jesus said that not even the gates of hell will prevail against His church. Do you have the faith that even now is trusting that God is at work to provide in such a way as to see His entirely good purposes come to pass?

The Lord in His sovereignty would not permit their rage to bring about Joseph's murder...he even used the chief among them who had less than pure motive to intervene

V21, 'But when Reuben heard it, he rescued him out of their hands, saying, "Let us not take his life." And Reuben said to them, "Shed no blood; throw him into this pit here in the wilderness, but do not lay a hand on him" — that he might rescue him out of their hand to restore him to his father. So when Joseph came to his brothers, they stripped him of his robe, the robe of many colours that he wore. And they took him and threw him into a pit. The pit was empty; there was no water in it.'"

Reuben was the eldest — Jacob's firstborn to Leah. In that he bore responsibility for his brothers. He also had a stain he sought to remove...in Genesis 35:22 — after Rachel's death...just near Bethlehem where the family were living in a tent, Reuben committed adultery with Bilhah — his father's concubine, who had been Rachel's servant....mother of his brothers, Dan & Naphtali...

That act of shame would remain Driven by guilt to redeem his name...Reuben intervened...to modify the plan as if to appease their guilt by letting Joseph die in the pit, rather than actively in shedding his blood...

때로는 악이 좀 더 우세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습니다...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선택하신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그 형제들의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하나님께서 그 형제들 가운데 우두머리를 사용하셔서 개입하십니다.

21~24 절 “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르우벤은 첫째 아들로, 레아의 아들이었고, 그의 동생들을 살피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가 지은 죄의 얼룩을 지워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창세기 35:22 절을 보면, 라헬의 죽음 이후, 베들레헴 근처 천막에서 생활 할 때, 르우벤은 그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빌하는 라헬의 종으로서, 그의 형제인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죄의 수치가 그에게 남아 있었을 것이고, 이런 수치심 가운데 르우벤은 그의 형제들의 계획을 변경합니다... 피를 흘려 요셉을 죽이는 것 보다, 그를 구덩이에서 죽게 하여 그의 죄책감을 덜게 하려는 듯이.

God's sovereignty was even at work to use Reuben's place as the firstborn, his futility in attempting to redeem himself to turn to the nearby pit that God had not only also arranged ... but prevented from having water in it. If it had been filled with water, Joseph would have drowned. After their deed we read

V25, '(Then) they sat down to eat. And looking up they saw a caravan of Ishmaelites coming from Gilead, with their camels bearing gum, balm, and myrrh, on their way to carry it down to Egypt. Then Judah said to his brothers, "What profit is it if we kill our brother and conceal his blood? Come, let us sell him to the Ishmaelites, and let not our hand be upon him, for he is our brother, our own flesh." And his brothers listened to him.'

To sit down & eat conveys a horrific callousness...an unfeeling disregard for their brother in the pit. Judah is next to articulate second thoughts about the murder...with Reuben absent...the Lord uses Judah to modify the plan again. 'let's sell him to the Ishmaelites'

v28, 'Then Midianite traders passed by. And they drew Joseph up and lifted him out of the pit, and sold him to the Ishmaelites for twenty shekels of silver. They took Joseph to Egypt.'

The Midianites & Ishmaelites were descendants of Abraham it seems by this time — they were almost synonymous as a group, separate from the sons of Israel. They were outside the covenant God had made with Abraham, Isaac & Jacob.

But they were nonetheless God's provision on that trade route — going to Egypt. They could have just as easily been coming from Egypt — but for the sovereign plans of the Lord.

하나님의 섭리는 르우벤의 이런 행동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하나님께서는 그 근처에 있던 그 구덩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물이 없는 것 또한 그 계획 하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안에 물이 있었다라면, 요셉은 물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이런 행동 후, 다음과 같이 말씀 합니다...

25~27 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음은, 구덩이 속에 죽어가고 있던 동생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들의 끔찍한 냉담함을 나타냅니다... 이제 유다가 이런 살인 계획을 재고합니다...르우벤이 없는 상황에서, 유다는 원래의 계획을 변경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사용하십니다. 그 계획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28 절 “그 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미디안과 이스마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그러나 요셉의 세대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별개의 집단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우신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집트로 무역을 하러 가던 길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Paul Tripp: “Many of your struggles are often the result of a collision between your plans and God's. Although you knew exactly what you wanted to accomplish and those things that you were determined to avoid, your life didn't unfold as you planned. In some scenarios, it seems as if life is totally out of your control. But, you must rest in the fact that every situation, circumstance, location, experience, and relationship of your life has been under the wise and careful administration of the Lord Almighty.....

Is your life more a picture of resting in His control, or of a quest for your own control?”

Deceitful Deeds, Providential Potiphar (29-36)

v29, ‘When Reuben returned to the pit and saw that Joseph was not in the pit, he tore his clothes and returned to his brothers and said, “The boy is gone, and I, where shall I go?”’

Notice Reuben’s reaction shows he’s not regarding Joseph’s wellbeing as much as his own. To their evil actions they add deceit,

v31, ‘Then they took Joseph's robe and slaughtered a goat and dipped the robe in the blood. And they sent the robe of many colours and brought it to their father and said, “This we have found; please identify whether it is your son's robe or not.” And he identified it and said, “It is my son's robe. A fierce animal has devoured him. Joseph is without doubt torn to pieces.” Then Jacob tore his garments and put sackcloth on his loins and mourned for his son many days. All his sons and all his daughters rose up to comfort him, but he refused to be comforted and said, “No, I shall go down to Sheol to my son, mourning.” Thus his father wept for him.’

Paul Tripp 은 이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많은 어려움은, 당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부딪치는 데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명확히 성취하고 싶은 것과 피하고자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삶은 당신의 계획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몇 시나리오에서는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당신의 통제 밖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당신은, 당신의 모든 상황, 장소, 경험, 인생의 관계는 지혜로우시고, 섬세하신 주님의 전능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안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안심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당신 스스로 통제하려는 인생입니까?

사악한 행동들, 섭리 가운데 보디발을 만남. (29~36 절)

29~30 절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여기서 르우벤의 반응을 주목하면, 그는 요셉의 처지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처지만을 신경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그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속임으로, 그들의 사악함을 더해 갑니다.

31~35 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Five times in four verses the author mentions the robe....We're meant to see that even here in the deceit of a father over the clothing of a favoured son that God is at work. We recall the time (Genesis 27) when Jacob had used goats to deceive Isaac when he pretended to be Esau so that he would gain his blessing.

Sinclair Ferguson, "This father who had practiced deception who had been wrestled to the ground.....was still a man in whom sickness was present...in the divine economy he needed more surgery" God's sovereignty over events — particularly the times of pain & trial are His operating room — because sin runs far deeper than we think.

We can be sure that no matter how dire our circumstances become, that our Lord is at work — sometimes to break hearts corrupted by sin's deceit sometimes to soften hearts in danger of sin's deceit....but always to strengthen our dependence on Him as He provides for us in those very circumstances.....

v36, 'Meanwhile the Midianites had sold him in Egypt to Potiphar, an officer of Pharaoh, the captain of the guard.' From the providence of the unknown man, to the passing traders now to the slave buyer, Potiphar — God was in every way at work.

Having Eyes of Faith in the Unseen God

We are all at many times & in many ways, victims of a broken world — subject to accident, illness & not least, the wounds of sin. But though we suffer as victims....trusting God's sovereignty safeguards us against a victim-mentality

Ultimately because the greatest son obeyed the greatest father to become the greatest victim of evil. + in refusing defeat, He secured our rescue & the promise of Romans 8:28.... 'we know that for those who love God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for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이 네 구절에서 요셉의 “옷”이 5 번 언급됩니다...우리는 여기서, 이 피 묻은 옷을 통해 아버지를 속이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27 장에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염소를 사용해 그의 형인 에서 인 척함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을 봅니다.

Sinclair Ferguson 은 이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땅바닥까지 씨름했던 이는 여전히 병 가운데 있던 자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 많은 수술이 필요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히 고난과 아픔의 시간은 하나님의 수술실과 같습니다...왜냐하면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를 병들게 하기 때문 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때로 죄로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키우게 하십니다.

36 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길에서 만난 이름 모르는 남자, 지나가던 상인들, 그리고 요셉을 노예로 사는 보디발...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

우리는 이 최악 된 세상의 피해자로 살아갑니다...그 가운데 사고를 당하며, 질병으로 고생하며, 죄의 상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해자로서 고통받을 지라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은, 우리가 피해 의식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지켜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악의 가장 큰 피해를 입으시면서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이 악에 패배하지 않으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로마서 8:28 절의 말씀을 보증하셨기 때문에 입니다...“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